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47

2025 봄

종개

Orthrias toni, 미꾸리과

크기	몸 길이는 약 10~15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황갈색이며, 진한 갈색의 네모꼴 얼룩무늬가 12~17개 있다.
주요 형질	몸은 길고 원통형이며, 몸 뒷부분은 옆으로 납작하다. 입은 작고 주둥이 아래에 있으며, 말발굽 모양이다. 입수염은 3쌍이 있고, 눈 아래 가시(안하극)는 없다.
서식지	물이 맑고 깨끗하며, 바닥에 돌과 자갈이 깔린 하천의 상류 여울에 서식한다.
먹이습성	주로 수서 곤충의 애벌레를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5~7월로 돌이나 자갈에 알을 붙인다고 알려졌으나 자세한 습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CONTENTS

04 고창섭 이사장 인사글
05 사무처 인사글
07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90
박성환 감사
11 실개천과 금강 - 13
15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2
19 정책 & 이슈
21 제24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24 네트워크 사업보고
26 대청호뉴스&뉴스
2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3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7

발행일 2025. 4. 19
발행인 고창섭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 집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대청호 벚꽃터널. 봄의 절정 풍경을 맘껏 자랑한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인생사진을 건져도 좋겠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에 취임하며...

글_**고창섭**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자연유산인 대청호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본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대청호는 단순한 저수지를 넘어, 우리 대전·충청 지역의 생명줄이자 수많은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출발한 환경단체이며, 이제는 창립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실천의 기반 위에서,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합동, 파트너십 구축,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2002년 시작된 대청호보전운동이 어느새 스물네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단체 모든 회원여러분들과 더욱 발전된 모습,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네트워킹을 통해 대청호 8개지역과 소통하며 탄탄한 연대체를 이어갈 것이며, 정책연구분야, 교육홍보분야, 대청호유역하천지킴이 등 사업분야별 파트너십을 구축, 이어가겠습니다.

운동본부 사무처의 모든 활동가들은 대청호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 모든 활동력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하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정미 사무처장)

“대청호와 함께 걷는 길, 그 첫걸음”

대청호 로컬푸드 생활공동체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던 중, 올 초부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본부의 활동은 더욱 활기차고 분주하며, 그만큼 지역과 자연을 향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대청호의 숨결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성실히 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육정임 총무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새로운 식구가 됨으로써”

지난 8년간 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가들과 연대를 맺다가 이번에 직접 다양한 수질보전 정책연구의 기획 담당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UNEP,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의 식수원을 담당하는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질보전 정책연구와 지역네트워크간 완만한 유대관계 유지에 매진하겠습니다.

(강보식 기획부장)

“대청호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3년”

어느덧 입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둘 쌓여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의 모든 분들과 함께 대청호를 깨끗하게 지키고, 대청호 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욱 팀장)

계획이 예산을 만들고, 예산이 신뢰를 만듭니다

박성환 재정감사

벚꽃이 만개한 봄날, 국립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연구실에서 박성환 교수님을 만났다. 2002년부터 우리단체 재정감사를 맡고 계신 박성환 교수님께서 비영리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건강한 시민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셨다.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2000년대 초에 경실련에 관심이 있어서 정책위원으로 잠시 있었는데 누군가 회계전문가가 필요했는지 감사로 나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맡고 계신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회계전문가로서 회계감사 업무, 재정 운영관리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어요.

■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문활동가가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 초부터 시작하여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비영리 단체에서 회계 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회계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구성원을 여러 가지 유혹이나 위험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회계 감사의 관점에서 본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재정 투명성은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본부의 재정운영 투명성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홈택스에 공시도 하고 있죠.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재정 상황 및 과제는 무엇일까요?

목적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기금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요. 매년 부족분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외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여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증액도 필요하고, 재정적 자립력을 키우기 위해 회비나 기부금 수입도 함께 늘려가야 합니다. 별개일 수 없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간의 협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전보다 기금 수령 절차가 복잡해지고, 예산 배분이 늦어져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짜임새있게 일을 잘 해내고,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아니면 안되는 일들이 있어야 서로간에 정당성이 생기는 일입니다.

■ 재정적 자립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회 자체가 자꾸 복지 비중이 점점 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국가 예산의 30~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정부기관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전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조금을 통해서 중간에 각종 공익기관, 사회복지기관, 공익법인 등을 통해 대신하게 합니다. 복지전달체계라고 하죠. 사회전체에서 복지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부정이나 횡령사건이 터지면 기부금이 확 줄어들죠. 정말 투명하고 좋은 곳에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개해야 기부자도 늘고, 기부금도 늘어납니다.

■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계획을 숫자로 바꾸면 예산이 됩니다. 계획을 잘 짜면 집행은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탄탄하지 않으면 예산 또한 그렇게 됩니다. 목적도 없는 예산이 있다든지, 계획이 없어 데드라인이 다되었는데 쓰지도 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정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짜면 잘 짜여진 계획을 돈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계획이 잘 짜여져 있으면 편성과 집행은 그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회계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갈 때마다 감사자료를 책상 한가득 올려놓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PDF로 바꾸어서 파일로 보관하고, 감사자료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출력해서 한가득씩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 평소 감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시민운동 참여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과 대척점에만 서거나 지나치게 이념편향을 가져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는 세계의 문제는 환경과 사회의 건강과 지속가능을 위해 민간,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 24주년을 맞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생

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으레 하는 거냐 아니면 대청호본부가 안하면 수자원공사가 이 일을 대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냐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의 평판도 나빠지고, 대청호의 오염도 더 심각해지고, 상수원이라든지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구멍이 생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큰돈이 아니더라도 계속 투입함으로써 뭔가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계획 수립부터 금년도의 목표가 무엇이고, 얼마를 달성했고, 향후 5년의 계획하에 어느 시점에서는 뭐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잘 수립되어 백서처럼 일관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사업수행 결과가 어떤 연구자료로도 쓰이고 보도자료로도 쓰이고, 수자원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세가 괜찮아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전문성 이전에 윤리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여요. 회계라든지 세부 전문지식은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다들 애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회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적인 화두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인권존중,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도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적 변화가 생긴 거에요. 충청의 소주회사가 계족산에 황톳길을 까는 것처럼 수질개선이나 대청호 주변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거에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유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청호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임천(林泉), 선비의 희망이 흐르는 곳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계족산

대전의 중심에 서서 동쪽을 보면 계족산이 눈에 보인다. 계족산은 산의 모양이 닭발과 닮았다고 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이곳의 정상에는 길게 산성이 쌓여있다. 삼국시대 테뫼식 석축 산성으로 백제가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서 신라가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논란이 있다. 성 중심에서는 삼국시대의 큰 우물터도 발견되었다. 성내 건물터를 조사한 결과 고려, 조선 시대의 자기편도 발견되었다. 조선 시대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는 신라와 백제가 쟁탈전을 벌인 곳으로 생각된다.

이런 산성을 뒤에 두고 대전 시내 쪽 방향으로 능선을 따라오면 끝 봉오리가 나온다. 이곳은 봉황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봉황산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읍내동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파른 길을 내려오면 용화사라는 절이 보인다. 용화사 마당에 서서 봉황산 쪽을 바라보면 큰 바위들이 보여 마치 신선이 사는 곳에 온 듯한 느낌이다.

임천 발원지

읍내방죽 버드나무

이곳의 좌측부터는 작은 계곡이 형성되어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빼곡하여 임도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다. 그래도 산림을 지나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작지만 수정처름 맑은 물이 흐른다. 이곳에는 작은 돌과 모래, 이끼, 나뭇잎들이 섞여 있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계곡은 짧아서 조금만 내려가면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쓰레기와 물을 채수하는 플라스틱 호스가 보인다. 이곳 물을 이용하여 밭농사나 농막에 이용하려고 채수하는 것이다. 이런 물들이 두 곳에서 모여 산속의 방죽에 모인다. 읍내방죽이다. 과거에 이 방죽의 아래는 논이 많아서 논에 물을 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밭, 농막, 아파트만 보일 뿐이다. 방죽의 물길이 빠져나가는 물길 쪽에는 밭이나 농막에 이용하려고 많은 호스를 설치하여 물을 가져가고 있다. 유입량은 적고 사용량은 많으니 봄, 여름에는 방죽이 마르기도 한다.

읍내방죽

읍내방죽 배수로

물 이용 호스

이 방죽은 두꺼비, 큰산개구리, 도롱뇽, 옴개구리들의 주요한 산란장이다. 특히 이 주변에는 양서류들의 산란장이 없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두꺼비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란장이다. 방죽의 옆에는 도로가 있는데 두꺼비들이 이곳을 통과하다가 차에 깔려 죽기도 한다. 이른바 '로드킬'이다. 길 옆에는 현수막, 푯말, 안내판이 있지만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 마리씩 죽기도 한다. 도로 아래로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두꺼비는 평소에 산 부근에 살다가 알을 낳으러 올 때, 돌아갈 때, 어린 유생이 돌아갈 때 이렇게 세 번의 죽음의 고비를 매년 넘겨야 한다. 내년에는 생태통로도 설치하고 유도 울타리도 설치되면 좋겠다.

방죽안에는 수생식물들이 많고, 다른 먹이도 많아 새들도 찾아온다. 뱀도 가끔 보인다. 최근에 방죽의 물 위로 데크를 설치하고 재방도 보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사람들에게도 편리하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방죽이 되면 좋겠다. 이곳의 두꺼비 올챙이 수만 마

임천의 우물

임천 옆 느티나무

리가 최근 3년 사이에 매년 전멸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방죽에 데크를 깔로 재방을 보수한 이후에 두꺼비 올챙이들이 모두 전멸했다는 사실이다. 빨리 원인을 밝히고 방지하지 않으면 두꺼비뿐만 아니라 다른 양서류 및 물고기들도 군집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방죽의 생태는 죽어가고 물도 오염 되고 있는 것이다.

방죽에 모인 물들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복개천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임천(林泉)이라는 암각화 군락이 나오는 곳이 있다. 임천(林泉)은 대덕구 읍내동 82번지에 있는 우물로 조선 후기의 숨은 학자가 임천의 맑고 깨끗함을 기리기 위하여 돌에 새겼다는 전설이 있다. 임천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다. 길옆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지만 늠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2월 말, 느티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다. 멀리서 보면 마치 우리 몸의 핏줄 같다. 대동맥 - 소동맥 - 정맥 - 모세혈관.....그 속에는 임천의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오랜 시간 임천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으리라.

이곳을 지나면 다시 복개천이 되어 읍내동을 지나 갑천으로 간다. 갑천은 다시 금강을 만나 서해로 간다. 임천은 짧지만 큰 역사를 간직하고 오늘도 계족산과 선비의 꿈을 안고 흐르고 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정화 활동과 오염방지 활동

글_**여규용** 대청호해설사

버들가지에 물이 올랐다. 잔뜩 부풀어 오른 겨울눈은 서서히 꽃을 피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건너편 언덕을 넘어온 봄바람은 호수 위로 윤슬을 남기며 봄 춤을 춘다.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눈은 꽃으로 잎눈을 잎으로 열심히 자기역할 하며 살아갈 준비를 한다. 봄은 이렇게 온 누리에 희망을 안겨준다. 거기에 햇살도 바람도 찬조 출연까지 서슴치 않는다. 아름다운 계절 봄이다. 이런날 대청호 호숫가를 걸어 본다. 아직은 바람끝이 차다. 아마도 겨울이 남겨 놓은 흔적 일터인데 그래도 코끝으로 느껴지는 봄의 기운을 어쩔수가 없다.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대청호엘 나가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오가는 길에 잠깐씩 들러 바람도 쐴 겸 잠시 걸어 보기도 하는데 왜인지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하다. 호숫가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고 겨울을 이겨낸 꽃눈이 기지개를 켜면 그제야 대청호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올들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부터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마을을 수시로 방문하는 일까지 그동안 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시작했다. 처음 마을 주민분들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느낀 것은 스스로 마을 가꾸기와 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에 참 적극적 이 라는 것이다. 마을을 위한 일이라 그런지 서로 앞장서는 모습이 든든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주민 몇 분이 이번 사업에 동참하신다.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지점을 정하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동시에 채수하고 그 시간을 틈타 마을 하천 정화 활동까지 하는 일이라 바쁘고 분주하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는 예전처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늘 뒤쫓아 가는 입장이라

어느 면에서는 미안하기도 하다. 이번 활동으로 물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습득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활동해 볼까 생각한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관심 있게 챙겨는

노현1리 주민들

도원1리 마을정화활동에 나오신 주민들

도원2리 주민들

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대청호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이다. 물의 오염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위들이 하천을 오염 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논과 밭에 뿌리는 비료와 농약 성분들이 비가 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천 물길을 따라 대청호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는데 오랜 습성으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어디든 이동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도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물질이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와 버려지는 쓰레기 또한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우리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의 사용을 줄이고 발생 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나가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 서야 한다.

나는 요즘 몇몇 초등학교에 늘봄 숲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거기서 매번 강조하는 일이 기후위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늘 물의 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오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에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하얀 백지장 같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실천하겠다고 약속도 한다.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고 관심 속에 살아 있을지는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많은 환경 학자들이 다가올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활동 기구도 만들고 감축 약속도 한다. 그만큼 지구의 기후 위기는 심각하다는 것인데 몇몇 나라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지구에 기후 위기가 닥치면 그 피해는 못사는 나라 취약계층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일에 또 하나의 책임감을 가진다.

지구환경에서 다양한 오염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물의 오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나고 폭설이 내리고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여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알게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후 문제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홍수, 폭설, 폭염, 가뭄도 모두가 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여지는 현상만 다를 뿐인것이다. 이런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구상의 물의 증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물은 오염되게 된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나라는 물 부족과 오염된 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잠시 물 오염의 원인을 살펴보자. 물 오염의 원인으로는 생활 하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 하수는 하수관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종말처리장으로 간다. 거기서 정화된 물을 흘려보내는데 이렇게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오염도가 높다거나 양이 많아지면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리비용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산업용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수질 오염의 주원인 중에 하나인데 공장지대에서 가동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자체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 덕분에 비교적 오염도가 훨씬 덜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도시 근교에 흩어져 있는 일부 제조공장들은 발생되는 공업용수를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 인가도 주요 정책 수립의 방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논과 밭에 뿌려지는 농약과 비료 들이다. 농작

쓰레기 수거중인 마을 주민들

쓰레기 수거중인 노현리 주민들

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비료 살포와 농약치기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오면 흙속에 함유되어 있던 농약과 비료 성분들이 흘러나와 도랑을 타고 강으로 바다로 간다. 그렇게 강이나 호수에 영양분 많은 오염물질이 쌓이면 부영양화 현생이 발생하고 물이 오염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많아진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물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쓰레기수거후 도원1리 주민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마을 정화 활동을 하며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자기가 살고있는 마을의 활동에 굽을 허리를 하고 참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모른다. 평소에는 오고 가며 무심했던 동네 작은 하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주우며 마구잡이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습성들을 못내 아쉬워하는 주민들과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류해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농사용 비닐 같은 것은 동네 어귀에 보기 싫게 널브러져 있음을 많이 보았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쓰레기 인 것이다. 물이 오염된 곳에서는 기르는 가축들도 질병에 시달린다고 한다.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병들고 그것을 잡아 먹고 사는 새들도 건강이 악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먹이사슬은 붕괴되고 지구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동물들 뿐 아니라 식물도 병들어 갈 것이고 그것은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식량난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부족간 전쟁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국가 간 식량 전쟁으로 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이 오염되면 앞서 말한 것 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신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있는데 물이 오염되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다면 당연히 건강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물 환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에서 실천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만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해진 기간이 없다.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가 힘이 되고 의지하여 만들어 가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오늘도 가슴 깊이 갈망해 본다.

기후위기 시대 사막화 가속하는 골프장 중단하고, 우리의 식수원과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를 보전하자

글_**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에워싸고 있는 옥천은 자연환경과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옥천군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하여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민들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친환경 농업과 대청호 보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덕분에 마을의 생태계는 잘 보전되어 2009년부터는 반딧불이 축제와 빙어 축제을 주도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21년 환경부는 이곳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고, 2023년에는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후원한 시민공모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을 지키자'에서 '아름다운자연 유산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옥천군은 10여 년 전에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했던 골프장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원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옥천군이 수립한 '옥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전력환경영향평가 요청이 2차례 보완을 거쳐 '조건부 동의'로 1차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골프장 건설 계획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과 지형도면 . 28년까지 24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 대청호 물을 활용하는 450만여 도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6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옥천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위원회가 진행한 생태조사에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애기뿔소똥구

리, 삵, 하늘다람쥐, 삼백초, 팔색조, 긴꼬리딱새, 쥐방울덩굴, 꼬리명주나비 등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희귀식물들이다. 또 골프장 예정부지는 산지가 발달되어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골프장 건설 중 안전은 물론, 이후에도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 골프장 잔디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농약과 제초제의 피해는 어떤가. 이 영향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명들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 450만의 식수원 오염이다. 옥천군이 신청한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는 450만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특별대책지역 II 권역에 위치하고 대청호 만수위로부터 1.3km 떨어진 대청호유역이자 수변구역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그래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Ia(매우좋음)으로 유지해야 하는 수질오염원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제초제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없다. 지금도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는 대청호의 수질 악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더불어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체와 옥천군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수십 년을 가족같이 지내오던 주민들이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장담하지만 골프장 건설로 인한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경제는커녕 옥천군은 오히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토양의 사막화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것이다.

친환경 골프장? 세상에 친환경 골프장은 없다. 농약을 조금 덜 쓰거나 친환경 농약을 쓴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녹색 사막'이라 불릴 정도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옥천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얼마 전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자연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기 어렵다. 일부 외지인의 유흥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450만 충청인의 식수원을 담보로 골프장을 추진하기에는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 부디 옥천군이 지금이라도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제 24차 정기총회, 새로이 시작되는 희망찬 한해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새하얀 눈과 시퍼렇게 날을 세운 칼바람이 유난히 잦았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 희망을 품은 봄볕을 기다리던 다양한 사람들이 2월27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단체의 스물네번째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옥천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주신 것.

익숙한 만남, 서먹한 만남, 첫 만남 등이 어우러져 그저 반갑고 고마움으로 가득 채워진 날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대청호 가족들은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기에 우리단체 정기총회는 연신 웃음과 인사가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의 멋진 사회로 시작되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호국영령, 항공참사 추모묵념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연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한마음을 보탰다.

이어 특별공연이 준비되었는데, 옥천와이즈뮤직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유선주씨의 멋드러진 트럼펫 연주는 깊은 울림을 전했고, 이어진 노래와의 조화는 정기총회장을 단순히 회의공간이 아닌, 대청호 가족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기 충분했다.

차분하면서도 밝은 분위기속에서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오늘 하루의 의미를 되새기

는 가운데 2024년 한해동안 대청호수질개선을 위해 헌신한 운동본부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대청호지킴이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대청호 상하류지역 총 11명(주민8명, 유관기관1명, 활동가1명, 대청호해설사1명)에게 상장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되었고, 많은 이들의 축하와 환호성이 울러퍼졌다.

각 지역별 주민들은 축제와 같은 시상식에서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응원의 메시지가 서로 전달되는 모습속에서 앞으로의 대청호보전운동의 힘찬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우리단체 스물네번째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식 의장(부이사장,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면서 임정미 사무처장으로부터 총회원 136명 중 114명(본인참석42명, 위임참석7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이 보고되었다.

23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에 이어, 2024년 감사보고 승인, 2024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 임원선출, 2025년 사업 및 재정계획 심의 등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총회를 기점으로 우리단체 이사장으로 선출된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은 "앞으로 2년간 대청호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미 사무처장은 2024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의 전반을 보고하면서 대청호보전운동에 동참하는 전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과 수고로움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한편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더 끈끈한 연대가 다소 느슨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손동완 대청댐지사장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사업성과를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에 감동을 넘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대청호보전운동이 활성화될수록 대청호 수질개선의 효과가 상승하는 것인만큼 대청호 상하류 지역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많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 지원할 수 있는 공고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밝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 수질개선활동이 더욱 변화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높아지는 대목이었다.

매년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기 위한 2월중하순경이면 어김없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기총회는 계속된다. 150명 이상 참여하는 회의구조를 쉽게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만큼 대청호보전운동에 동참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상상 이상이다. 그만큼 지원대책도 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한 운동본부 조직의 강화 및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중론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대에 맞는 방식의 변화발전시스템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 크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한 이들과 대내외부 회원들의 적극적은 의견수렴이 필요한만큼 신중한 접근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조직강화방안 마련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물네번째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우리 대청호가족들은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약속하며, 늘 함께 곁을 지키고 동참하는 대청호 가족 모든분들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무주네트워크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25년도 무주네트워크는 "청정마을만들기" 슬로건으로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운영회의 때 참석한 위원님들에 의견과 뜻을 모아서 시작한 사업은

수년간 회원마을 주민들과 진행해왔던 회원마을가꾸기 사업과 회원마을 중 사업참여 의지가 높고 사업 효과가 컸던 두 마을을 선정하여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운영회의를 통해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하천 중 오염원이 많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쓰레기 투기가 많은 하천변 수목식재와 하천 정화 활동, 쓰레기 수거, 주민 환경교육, 친환경 제품 만들기,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량천 맑은 물 만들기 사업은 무주 네트워크와 간사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정화 활동과 가시박 제거 활동, 도랑에 외래풀제거와 농약빈병수거활동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무주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과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금산네트워크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2025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금산네트워크는 7개 단체 및 12개 회원마을이 협조하며 운영하고 있다. 금산네트워크는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추풍천소유역거버넌스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생활화와 개인 중심의 개발 등으로 자연도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요즘, 사람도 자연도 잘 적응하며 건강한 관리가 이뤄지기를 바래본다.

옥천네트워크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

매년 돌아오는 새해지만 새해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옥천네트워크는 대청호수중정화활동(주관:대청호수난구조대), 선진지견학, 향수둘레길 걷기, 소유역거버넌스(안내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모두 파이팅입니다!!!

영동네트워크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의 25년도 사업은 3.27 하천정화활동을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원마을 위주로 정화활동과 다양한 환경교육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정화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피해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환경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내실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보은네트워크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의 사업중 회원마을과 환경연합보은지부 회원들, 하천감시단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맑은하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꾸준한 정화활동으로 인하여 관심이 많아진 회원마을과 환경연합회원들이 늘어나 올해는 더 많은분들과 맑은하천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회원마을분들과 환경연합회원, 하천감시단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네트워크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2025년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및 주민참여 활성화' 라는 사업명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원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대청호 친환경농산물 보따리, 직거래장터 운영, 대청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 도농교류활동, 대청호 환경사랑 실천마을활동, 네트워크 회원마을 활성화 사업 등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 및 주민환경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병천천 소유역 시민과 함께 물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소유역 물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대청호 ~ 병천천 살리기 시민운동 확산, 시민·수계주민 대상 물사랑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병천천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2024년도 부족한 활동과 사업을 2025년에는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청호 뉴스 & 뉴스

대청호에 봄이 깃들다… 물빛 되살린 민·관의 손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마음들이 봄바람을 타고 대청호로 모였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는 '33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1일,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청풍정 일대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대청호 대청결운동을 펼쳤다.

정화활동에는 K-water 대청댐지사,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대청호수난구조대, 지역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금강과 대청호 수계 일대를 정비하며 수질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겨우내 방치된 생활 쓰레기 수거와 더불어 호숫가 주변의 잡목 정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청호수난구조대의 활약으로 수변뿐 아니라 수중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함께 수거해 약 80kg 마대 100개 분량의 오염원을 제거했다. 정리된 쓰레기 전량은 옥천군이 일괄 처리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청호는 옥천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며 "오늘의 정화활동을 계기로 대청호 상류지역 전역이 한층 더 청정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water 대청댐지사 손동완 지사장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민·관이 힘을 모아 정화활동을 벌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깨끗한 수자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수계 보호를 위한 '민·관 정기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정미 사무처장은 "대청호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청결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형 수질 개선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한 물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매년 수질 정화와 보전 캠페인을 통해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출처 :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2025년 3월 23일 기사

풀리지 않는 난제 '대청호 규제 완화' 협치로 풀어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도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적 협력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수도법과 금강수계법 개정, 보호구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생활 편의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을 시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들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관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장은 "하수 처리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어 대청댐으로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수도법 규제에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980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40여년이 지난 현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에게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측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단체는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40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 쪽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협의테이블을 형성하게끔 하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없는 현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접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2025년 1월 21일 기사

금강을 지키는 시민의 눈…하천감시단 활동 돌입

금강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설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지난 3월 31일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2025 금강하천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올해 하천 감시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금강하천감시단은 금강 본류와 지류 하천이 흐르는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보은·청주 문의, 대전 대덕구·동구 등 9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4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수질오염원 탐지와 하천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하천감시단을 비롯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와 네트워크 활동가, 지역 단체와 유관 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산불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하천감시단 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위촉장 수여식, 활동 결의문 낭독, 활동선서 등으로 이어졌다. 단원들은 각자 지역에서 생태계를 지키는 '시민 감시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하천감시단을 총괄하는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고선환 대표는 환영사에서 "금강을 지키는 일은 단지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 지역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올해도 모두가 안전하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강하천감시단은 오는 12월까지 금강과 지류 일대에서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며, 하천의 변화와 문제를 주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대응해 나간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번 금강 하천감시단 활동은, 시민의 손으로 금강의 건강한 흐름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생태 감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출처 :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2025년 4월 1일 기사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청주 미호강서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 월동 확인

충북 청주시 무신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무리지어 월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호강 조류 조사를 진행하던 중 무심천과 미호강이 합류되는 작은 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10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중요 서식지로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205-2호로 지정된 법적보호종이다. 10마리 이상 무리를 이룬 내륙 월동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엔조이' 보러오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유튜브채널 <엔조이>를 시작했다. <엔조이는> 'environment in joy'의 줄임말로, 매주 목요일 1편의 콘텐츠가 올라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엔조이>를 통해 대전과 전국에서 일어나는 환경 현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3월7일 게시된 <엔조이> 1편에서는 금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세종보에서 천막 농성 중인 이야기와 수문개방 전과 후를 비교하며, 담수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 14주기를 추모하여 탈핵의 이야기를 시민의 언어로 조금 더 쉽게 만들었다.

영상을 요약한 쇼츠를 제작해 짧은 시간,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접할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조회수가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본편은 약 100명 이상이 시청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환경운동의 가치를 시민들과 쉽게 접근하고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상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다양한 환경 현안을 소통해 나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기대해주면 좋겠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기다리고 있다.

"효과없는 대전 하천 준설에 예산 낭비" 환경단체, 감사 청구

홍수 예방 목적의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을 생태계 파괴·예산 낭비 이유로 반대해온 지역 환경단체가 27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준설 강행으로 대전시민의 자산인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연이은 독단 행정으로 시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장우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준설 과정에서 편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는 긴급재해 예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천 통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안전성을 토대로 준설 구간을 설정했다"며 "준설은 하천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서식 조사와 보호 조치는 물론 벌목할 수목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겨울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인 신구교 인근과 불무교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3대 하천 관리 주체인 환경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환경부는)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할 책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대전시는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갑천·대전천·유등천 등 3대 하천에 대한 준설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YMCA, 식품의약품안전처 '튼튼 먹거리 탐험대' 7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대전YMCA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 튼튼먹거리 탐험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2025년도 '튼튼 먹거리 탐험대'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5년에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94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과 체험기회가 적은 장애인 특수교육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기 유아·아동,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당류와 나트륨의 양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보다 높아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개된다.

튼튼먹거리탐험대는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실 크기로 확장되는 초대형 특수차량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교실로 찾아가는 수업으로 실시하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내용은 ▲당류와 나트륨 알아보기 ▲새콤달콤 사과머핀 만들기 조리실습 ▲교재활동 ▲식중독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천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

(재)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천안녹색소비자연대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대상 환경교육, 자원순환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종이팩 수거 활동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등이다.

협약의 일환으로 천안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천안시청소년재단 한상경 대표이사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정화진 관장,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김민하 상임대표, 유혜정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천안시청소년재단 한상경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김민하 상임대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잊지 마세요.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